

내외 소식

연차 대회에 참석한 감독의 가정을 방문하여 격려하시는 스테이크 부장

지난 10월 5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서울 스테이크의 감독들은 처음으로 연차 대회에 참석하였다. 스테이크 부장단에서는 여행중의 감독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애로점을 상의하고 기도하여 걱정을 덜어 주었다.



목포 지부 예술의 밤 성황

지난 6월 7일 목포 지부에서는 상호 향사회 주최로 전 목포 시민을 상대로한 "예술의 밤"을 가졌다. 시 낭독, 음악, 무용, 선교사 게임 및 연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목포 지부 상호 향사회의 실력을 과시했다.

특히 「새마음 운동」이란 제목의 연극은 관객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남겨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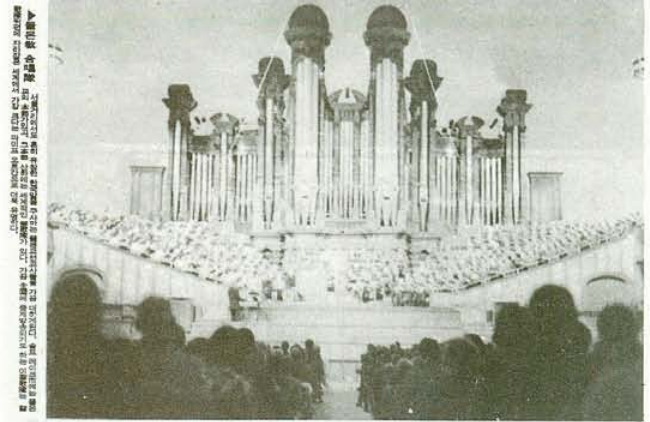


성도의벗 1973년 11월호

태버나클 합창단, 조선일보에 소개

지난 10월 14일자 조선일보 5면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자랑중의 하나인 태버나클 합창단이 칼라로 크게 소개되었다.

조선일보의 미국 횡단 특별 취재반이 취재한 이 기사는 짙막한 기사와 함께 19cm×15.5cm의 원색 사진으로 실렸다.



▲태버나클 합창단. "조선일보"에 소개된 태버나클 합창단의 모습. 사진은 태버나클 합창단원들이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태버나클 합창단 제공)

전주 지부 9월 음악회 갖다.

전주 지부에서는 지난 9월 15일 상호 향사회 주최 제2회 9월 음악회를 가졌다.

매년 가을을 맞아 갖는 이 모임은 제1부는 음악 감상과 선교사들의 무언극, 제2부는 음악 발표 순서와 다같이 노래하기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대전 지부와 군산 지부에서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상호 향사회 직원들을 호뭇하게 했다.

이날 모임에는 120여명의 성도가 참석하였으며 초대 손님으로 참석한 박 주인 지방부장은 향사회를 통하여 회원이 발전하는 것을 볼 때 기쁘기 한이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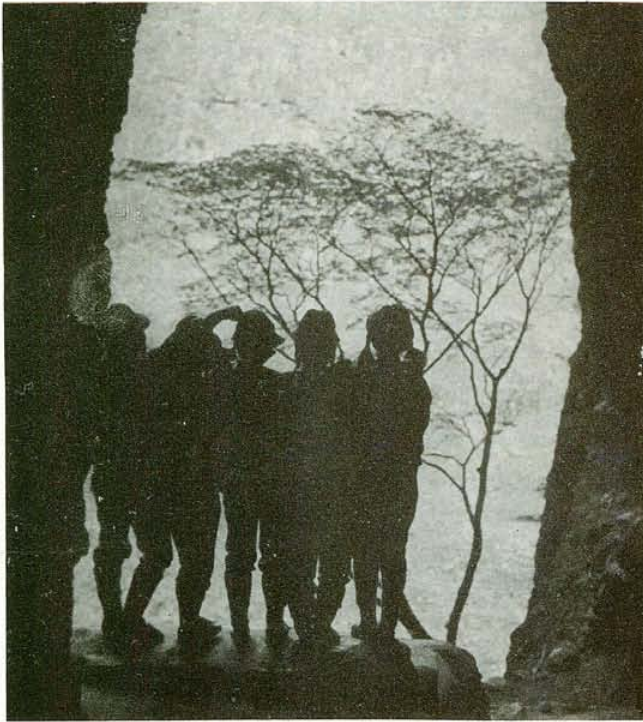


군산 지부 사진 컨테스트 갖다.

지난 8월 16일 군산 지부에서는 상향회 주최로 회원들의 "사진 컨테스트"가 있었다.

회원 각자가 지금까지 찍고 모은 400여점을 출품하여 가졌던 이번 컨테스트에서 최우수작에는 함 경덕 자매의 "등굴" 이, 우수작에는 박 인옥 자매의 "아빠왔어? 기다려 문열어 줄까" 가작에는 함 경숙 자매의 "코스모스 질때까지"가 입선 되었다.

최우수작인 함 경덕 자매의 사진을 함께 심는다.



송 명화 형제 발표회 갖다

목포 지부에서 상호 향상회 회장으로 일해 온 송 명화 형제가 지난 8월15일 오후 7시 30분 목포 신혼 예식장에서 출신 지역인 목포를 떠나면서 그의 재능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제2와드 회원으로 현재 서라벌 예대 연극 영화학과에 재학중이다.



전주 지부 소속 운암 주일학교 창립

지난 9월 2일, 전주에서 약 50키로미터 떨어진 섬진강변에 위치한 운암 재건 중학교에서는 오 양식 전주 지부장을 모시고 전주 지부 소속 운암 주일학교의 첫 모임을 가졌다.

이곳의 몇 회원과 학생들은 오랫동안 예배볼 수 있는 기회를 고대해 왔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배를 타고 오고 가야하는 불편에도 불구하고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형제 자매애를 나눌 수 있었다.

여수 지부, 가족 단위 모임 갖다.

지난 10월 3일 여수 지부의 회원 37명은 회원들의 친목과 간증을 발전시키고 가족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 구룡산에서 가족 단위 야유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상호 향상회 역원들이 준비한 특기 자랑, 게임, 보조 조직 대항 노래 자랑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겼다.



목포 지부 임해 체육대회 갖다

지난 8월15일 목포 지부에서는 박 창식 지부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성도들이 목포에서 과속정으로 1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금호도 해수욕장에서 임해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들 회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속에서 무더운 여름날의 하루를 보냈다고 상기된 얼굴로 기뻐했다.



스테인크 감독, 반연차 대회 참석

서울 스테이크 산하 7개 와드의 감독과 (8와드의 이강우 감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함) 김 중균 축복사,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는 태버나클에서 개최된 제143차 반연차 대회에 참석코자 지난 10월 5일 서울을 출발 10월 6일

부터 시작된 대회에 참석하였다.

본부의 초청으로 대회에 참석하게된 이들 9명의 형제는 처음 참석한 대회의 느낌과 서울 스테이크의 발전을 처치 뉴스를 통하여 세계의 많은 성도에게 알릴 기회를 갖기도 했다. 처치 뉴스에 실린 기사를 함께 읽는다.

Conference Impresses Nine Korean Members

Impressed and fortified with the gospel were the terms used by nine Korean church leaders to describe their first visit to a general conference.

The nine men listened to the conference sessions with the aid of translation earphones in their own language. It was the first time the Korean language had been translated for a general conference.

Pres. Kim, Chan Suen (the family name is used first in Korea) first counselor in the Seoul Stake led the group, which included the stake patriarch, Kim, Chong Kyun and seven bishops, Kim, Cha Bong; Cho, Kyu Young, Kim, Chong Youl; Hong, Moo Kwang; Cho, Byung Ha; Koo, Jhung Slaick and Yong, Jea Ho. Bishop Lee, Kong Woo was not able to leave Korea because he was only 29 years of age and passports are not issued under age 30.

The Seoul Stake was organized last March '8 when President Spencer W. Kimball of the Council of the Twelve visited Korea.

Each of the men chose as leaders in the stake were outstanding community leaders. Pres. Kim, for example, is a medical doctor and psychologist. He is in charge of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the large Hanil Hospital in Seoul.

"Activity has increased since the stake was organized. Our members are more involved and new leaders are being developed. Our high council is completely organized and is very strong. Our seventies are aiding in the missionary work. Attendance at stake conference

was about 40 percent last time," Pres Kim said.

The Korean visitors reported that the economy in Korea was stable and the U.S. dollar had only decreased from 400 marks to 397 marks.

The group attended the Provo Temple, where the six who had not received their endowments were blessed with that opportunity.

Their schedule was busy with the various departments of the church as they took advantage of the learning opportunity.

"It has been a spiritual uplift to attend the conference. I felt a closeness to the General Authorities and members of the church. I have a testimony that President Harold B. Lee is a prophet. I met him two years ago and I knew it then, but it was special to see and hear him in the Tabernacle.

music I felt right at home and I realized that we were all of one church. It was wonderful to be with the members. We were no longer strangers," Pres. Kim said.

Each of the men made careful and extensive notes so they can take the message back to their stake and wards.

They all agreed that the visit was interesting and the customs different. They tried new food and thought it was strange to have cake for breakfast. They admitted that they missed kimchi, the pickled cabbage, flavored with spice and garlic, which is a staple food in Korea.



Nine Korean members discuss their trip to conference.

신학 연구원 부산 지역 학생들 야유회 갖다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신학 연구원 부산 지역 학생들은 남쪽 동해안에 위치한 일광 유원지에서 도 길회 교수를 모시고 30여명의 신학 연구원생들이 모인 가운데 야유회를 가졌다.

이들 학생들은 교실에서 나눈 형제애를 놀이와 게임을 통해 함께 나누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은 훌륭한 모임이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